



제목	Between Two Worlds: The Construction of the Ottoman Stat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발행일	1996. 11. 7.
저자	Cemal Kafadar
출판도시	New York
페이지수	205
ISBN 또는 ISSN	978-0520206007

내용 요약

이 책의 저자는 초기 오스만 시대를 다룬 다른 역사학자들 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한 해석을 제공한다. 문화사학자로서 저자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에 예의주시하고 당시 역사학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특히 주목한다. 저자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 그러니까 중세 말기에 아나톨리아와 발칸 반도에서 권력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인종, 부족, 언어, 종교, 정치가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를 면밀 주도하게 분석한다. 인류 역사상 단일 정치 체제로 가장 오래 생존한 오스만 제국의 등장에 대해 저자는 역사적·민족주의적·민속적 관점을 총동원하여 아주 독창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우선 이 책의 저자는 1301년부터 1461년까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후 오스만이 오스만 제국의 창시자임을 '선언'한다. 제1장에서는 역사기록학적인 관점에서 근대 오스만의 발흥을 다루고, 제2장에서는 중세 아나톨리아의 개척자적인 내러티브를 소개하면서 오스만 가계의 연대기를 제공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가자(gaza) 정신, 즉 '성전(聖戰)'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 저자는 오스만 국가들의 형성과 형성과정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맹 관계를 맺으며 같은 구조를 빛는지를 독창적으로 풀어내는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오스만 제국의 형성 및 제국의 유지 및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치기술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